

녹색가게 이용자의 의복 재사용 실태와 의복 태도에 관한 연구

김인숙 · 석혜정
경희대학교 의상학과

A Study on the Practices of Clothing Reuses and Clothing Attitudes by the Green Store Users

Hye Jung Seok · In Suk Kim

Dept. of Clothing & Textiles, Kyunghee University
(2004. 1. 2. 접수)

Abstract

This study looked into the features of the consumers who positively reuse the clothing through their actual exchanges at second-hand clothing stores. The findings indicate that it shows the features of the consumers who perform the environmental activities by treating the clothing to be actually left unused, in an environmentally-friendly way, and that it may present the programs that will be able to create more consumers on the basis of its findings. The study used the questionnaire method, and the subjects were selected among those who have the experience of buying the second-hand clothing.

The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major users of Green stores were found to be many among the females in their forties by the age, with 2 million Won or more by the income, of the graduates of high school or higher by the educational background, or of the housekeepers with children by the job.
2. The practices for the Green store utilization showed the highest ratios in one or two times of uses a month, one to four pieces of purchases a month, female clothing by the article, or trousers by the purchasing item.
3. As for the level of satisfaction after the clothing purchase at green stores, 70 percent of the respondents were satisfied, and the high ratios were seen with "the price was very low" or "since it seemed to support the environmental issues" by the reason for the satisfaction.
4. The findings on the clothing attitudes by the green store users showed fashion and social status symbol (factor 1), feminine modesty (factor 2), convenience (factor 3), alignment (factor 4), and economy (factor 5).

Key words: Green store, Clothing reuse, Clothing attitude; 녹색가게, 의복 재사용, 의복 태도

I. 서 론

산업 사회와 과학 기술의 발전은 생활의 편리함과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 왔다. 그러나 새로운 제품의

대량생산과 과소비의 증가는 자원고갈과 폐기물 처리의 문제를 등장시켰고, 환경오염, 파괴 등의 환경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과소비로 인해 환경오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방안 중의 하나가 물자의 재활용이다.

재활용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가운데

이 연구는 2003도 경희대학교 지원에 의한 결과임(KHU-20030333).

수집, 운반, 처리 과정에서 물질을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즉 한번 사용한 것을 자원으로 재생하여 이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쓰레기 처리량 감소, 자원 절약, 에너지 절약 및 생활환경의 오염 방지에도 큰 역할을 한다. 정부는 환경을 보전한다는 관점에서 폐기물의 재생, 배출 억제, 감량화, 재생품의 이용을 생산, 유통, 소비 단계마다 추진하고 있다(환경처, 2003). 그러나 환경처의 이와 같은 노력은 아직도 초기단계이고 실천과정마다 생산자 및 소비자의 의지부족과 실천과정의 현실적 고충 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과생산과 과소비를 인한 환경문제는 앞으로의 인간 생활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대두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의복은 기술과 경제적 발전으로 소비 양식에 획기적 변화가 일어났다. 의복의 재료가 다양화되고 섬유유의 내구성은 엄청나게 향상된 반면 대중매체는 유행의 속도를 가속화시켜 현대인은 계속해서 새로운 유행을 맞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의류의 수명은 극도로 짧아져, 사장 의복(가정 내에는 입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의복 이하 사장의복으로 칭함)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장 의복의 일반적인 처리는 쓰레기와 함께 매립하거나 헌옷 수집함에 분리 수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두 방법 모두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매립은 현재 생산되는 의복의 섬유 조성이 쉽게 분해되지 않는 합성섬유가 많기 때문에 토양 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헌옷 수집함에 분리 수거하는 방법은 착용 가능한 의복류는 동남아, 중국 등지에 수출하고, 나머지는 폐품재생 공사에 보내져서 걸레, 완구내 충전, 보온재, 재생원료 등으로 사용되나, 섬유 소비량에 비해 재활용율은 극히 낮고, 의류 수집함은 각 지역별 일부에서만 설치 운영되고 있다(김병미, 이재명, 1997). 그러므로 사장 의복의 폐기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간구되어야 할 것이다.

소비자가 가장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자원 재활용이란 불용화된 것을 다시 사용하는 재사용이라 할 수 있고, 특히 사장 의복의 재활용 행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재사용이라 할 수 있다(노영래, 김시원, 2002). 그 중 중고 의류 판매점에서 중고 의류를 판매, 구매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중고 의류 구매율은 극히 적다. 그 이유로는 우리나라의 중고 의류 시장이 초기 단계로 활성화되기 못해, 중고의류판매점이 거의 없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김병미, 이재명(1997)의 연구 결과에서 중고의류판매점에서 중고 의류를 교환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한 헌 의복의 교환이나 증여에 대하여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조사 결과 77.8%가 경제적 측면과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다른 사람이 입던 옷을 입겠다고 한 결과를 보면 중고의류 시장에 대한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소비자의 의복 재활용 행동에 관한 연구는 소비자의 환경의식과 결부된 연구, 재활용의 포괄적인 인식에 관한 연구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또한 의복 재활용에 관련된 연구는 양적으로 적고 실제 의류의 적극적인 재활용을 실천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실천 행동이나 이들의 인구통계적 특성, 의복태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사장 의복의 처리 방법으로 큰 역할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고 의류 판매점에서 실제로 의류 교환을 통해 의복을 적극적으로 재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행동과 의식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즉 각 지역별로 중고용품의 교환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녹색가게'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인구 통계적 특성, 의류 재사용 실태, 의복 태도를 조사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환경 문제에 대한 소비자 의식은 높으나 행동 수준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며, 개인의 생활양식이 환경을 의식하여 실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지 못했다는 이춘희(1998) 연구의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실제 환경 운동을 실천하는 소비자들의 특성과 의복에 대한 태도를 연구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 결과는 사장 의복의 처리에 있어 의류 재사용이라는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이들의 특성을 토대로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는 환경친화적인 의류 처리 방안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사장의복 및 처리 방법

사장 의복이란 가정 내에는 입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의복을 말한다. 의복 재료가 다양해지고, 대중 매체에 의한 빠른 정보 전달로 인하여 유행에 따라 의류의 수명이 짧아지고 있고, 이로 인해 사장의복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노영래, 김시월, 2002).

사장 의복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김병미, 이재명(1997)은 체형 변화 등으로 치수가 맞지 않아서, 오래 입어 낡아서, 디자인, 색상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유행에 뒤떨어져서, 세탁이나 착용 중 모양이 변하거나 지퍼 등이 고장나서, 지나치게 많이 구입해서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유연실의 연구(1996)에서는 새로 산 다른 옷이 있어서, 유행이 지나서, 싫증이 나서의 이유를 들었다. 결국 사장 의복은 유행, 실증, 체형 변화에 의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해결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사장 의류 처리 방법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김병미, 이재명, 1997; 김시월 외, 1998; 신은주, 1989)를 살펴보면 소비자들은 헌 옷을 가족이나 친지에게 주거나, 그대로 옷장 속에 보관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폐기하거나, 고쳐서 재활용하거나, 헌옷 수집함에 넣는다고 하였다. 즉 사장 의복의 처분은 적극적인 처분 행동보다는 그대로 가정내에 보관하거나, 친척 등에게 주거나, 헌옷 수집함에 넣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취하고 있다. 또한 김용숙, 신상욱(1998)의 연구에서도 의생활 행동의 실천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다른 것에 비해 의생활 자원의 재사용 또는 재활용에 관한 실천도가 가장 낮았다.

의복의 소비 과정은 구입, 사용, 폐기로 이루어지는데, 구입할 때 만족스럽던 의복도 시기가 지나면 만족도가 떨어지고, 사용 빈도가 줄어들어, 결국 폐기된다.

의복의 수명은 신소재의 개발, 가공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연장된 반면 유행 변화의 가속화는 의복의 사회적 수명을 더욱 짧게 하고 있다(유연실, 1996).

사장 의복은 의생활 관리 측면에서 시간, 노력, 장소, 비용의 낭비를 가져온다. 사장 의복의 증가는 한 가정 또는 특정 계층에서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사회의 여러 계층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이용 가능한 자원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의 경제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이다(김병미, 이재명, 1997).

환경 문제와 관련된 소비자 행동에 관한 초기 연구에서는 의복은 흔히 연구 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최근에 오면서 전체 쓰레기 중 의복을 포함한 섬유류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화학 섬유 등을 매립했을 때 야기되는 환경오염의 문제 등이 심각해짐에 따라 의복 구매, 폐기와 같은 의생활 행동이 환경문제와 관련시켜 연구되고 있다.

지금까지 선행 연구에서는 사장의복에 대해 주부, 미혼 취업 여성 등을 통해 의복을 재활용하는 이유와 실태, 환경의식과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환경교육과 소비자교육으로 소비자들의 환경과 관련된 의식은 높지만 실천은 인식한 만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 의복 재활용에 대해 실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실제 의복 재사용을 실천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특성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사장 의복 처리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녹색가게

녹색가게는 1991년 과천생협 공동체가 시행한 환경교육 및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급을 위한 생협 활동이 발단이 되었다. 1992년 '자원재활용 캠페인'과 1994년 '중앙공원 알뜰장'의 정기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의 참여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다가 1996년 상설적인 재사용 문화 공간인 '알뜰매장'을 개장하였다. 그 후 1997년 IMF 시기를 맞으며 알뜰매장이 과천 주민 및 수도권 등 주민들의 재사용 공간으로 활성화되었다. 이후 과천의 녹색가게를 모델로 하여 서울 YMCA에서 전국의 녹색가게 운동으로 확대하여 현재는 서울 및 지방 64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1년 거래량은 약 90만점 정도이다.

녹색가게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지구 자원의 수명을 늘리는 자원 재사용 운동을 기반으로 지역의 녹색 소비 생활 양식을 정착시켜 지역 사회 공동체성 회복 및 자원 순환형 지역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운영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가져온 소비자가 다른 물건으로 교환해 갈 수 있도록 교환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현금 구매도 가능하다.

소비자가 물품을 가져오면 자원 봉사자에 의해 교환가가 산정되고, 그 금액의 50%를 녹색카드에 적립시켜 주는데 그 적립금으로 물품 구매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매장에서는 적립금을 사용하여 물품구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권장하지만, 현금구매도 가능하다. 품목별 가격은 물품의 질에 따라 결정되는데 셔츠나 바지의 경우 500~1500원 정도이고, 재킷은 300~1000원 정도이다.

녹색가게에서 교환되는 물품은 의류, 도서류, 신발

류, 가방류, 생활용품 등이고 이 중 의류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녹색가게의 운영은 자원봉사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지역마다 10~30명의 자원 봉사자가 있다. 운영 시간은 대부분 월요일부터 금요일 10시부터 4시까지이다.

녹색가게는 각 지역의 재활용 문화의 확산과 지역 주민 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역 환경 센터로 운영 중이다. 장소는 지역에 따라 YMCA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에 위치하고 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의류의 재사용을 실천하고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인구 통계적 특성, 의복 재활용 실태, 의복 태도에 대해서 조사한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녹색가게 이용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을 조사한다.
2. 녹색가게 이용자의 의복 재사용 실태를 조사한다.
3. 녹색가게 이용자의 의복 태도를 조사한다.
4. 의복 재사용 실태와 의복 태도 간의 관계를 규명한다.

2. 측정 도구

본 연구는 조사 방법으로 설문지법을 선택하였다. 설문지는 녹색가게 이용 실태, 의복 행동, 인구 통계적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녹색가게 이용 실태는 선행 연구(김병미, 이재명, 1997; 박광희, 1998)를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연구자가 수정하였다. 의복 태도 문항은 박정혜, 이선재(2002), 박혜선, 김화순(1998)의 연구를 토대로 유행성, 신분 상징성, 경제성, 동조성, 편이성, 정숙성 차원으로 나누어 각 차원당 4문항씩 총 24문항을 사용하였다. 5점 likert형 척도를 사용하여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인구 통계적 변인은 성별, 연령, 결혼 여부, 자녀의 수, 직업, 소득, 교육, 거주 지역을 조사하였다.

3. 조사 대상 및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중고의류를 구매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

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녹색가게를 이용하는 사람 중에서 그 곳에서 의류제품을 한번이라도 구입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편의 표본 추출법으로 설문조사하였다.

현재 녹색가게는 서울 및 지방 64곳이 있는데 그 중 서울 및 서울 근교 신도시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다른 녹색가게에 비해 운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8개의 녹색가게(구로새터, 과천생협, 양천, 은평, 종로, 영통, 일산, 중동 녹색가게)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예비조사를 거쳐, 본 조사는 2003년 5월 9일부터 7월 7일 사이에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343부를 수거하였으나 응답이 불충분한 39부를 제외하고 284부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 요인분석, 일원분산분석, t-test 등을 행하였다.

IV. 결과 및 분석

1. 녹색가게 이용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

녹색가게 이용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을 조사하였다(표 1). 성별은 여성(93.7%)이 남성(6.3%)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고, 결혼 여부는 기혼(89.1%)이 대부분이었다. 연령대는 40~49세(40.1%)가 가장 많았고, 30~39세(31.7%), 50세 이상(21.5%), 20~29세(6.7%) 순으로 중년층 이상에서 녹색가게 이용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의 수는 2명이 65.4%로 가장 많았고, 1명(21.8%), 3명(12.8%) 순이다.

수입은 200~400만원(41.0%)인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100~200만원(27.7%), 400만원 이상(21.8%), 100만원 이하(9.6%) 순이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도시 근로자 소득이 2002년 218만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소득이 200만원 이상이 61.8%, 이하가 37.3%로 분류되어 저소득층 보다 중산층 이상이 녹색가게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 정도는 대졸이 50.2%로 가장 많았고, 고졸(36.8%), 대학원졸 이상(7.9%) 순으로 고졸 이상의 고학력자의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직업은 전업 주부(66.2%)가 월등히 많았는데 이는 녹색가게가 주택가 주변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았고, 운영 시간이 대부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낮 시간 이었고,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인 때문으로 생각된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n=284명

일반적인 특성		빈도(백분율)	일반적인 특성		빈도(백분율)	
성별	여성	266(93.7%)	교육	중졸 이하	14(5.1%)	
	남성	18(6.3%)		고졸	102(36.8%)	
결혼 여부	미혼	31(10.9%)		대졸	139(50.2%)	
	기혼	253(89.1%)		대학원졸 이상	22(7.9%)	
연령	20 - 29세	19(6.7%)		직업	생산직	4(1.4%)
	30 - 39세	90(31.7%)			전문직	25(8.8%)
	40 - 49세	114(40.1%)			사무직	12(4.2%)
	50세 이상	61(21.5%)			판매직	7(2.5%)
수입	100만원 미만	26(9.6%)			교육직	8(2.8%)
	100 - 200만원	75(27.7%)			전업주부	188(66.2%)
	200 - 400만원	111(41.0%)	기타		35(12.3%)	
	400만원 이상	59(21.8%)				
자녀 수	1명	56(21.8%)				
	학생	5(1.8%)				
	2명	168(65.4%)				
	3명 이상	33(12.8%)				

이상의 결과 녹색가게의 주요 이용자는 30, 40대의 자녀를 두 명 둔 기혼 여성으로 수입은 200~400만원 정도이고, 대부분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2. 녹색 가게 이용 실태

1) 이용 횟수 및 구입 품목

한달에 녹색가게 이용 횟수를 묻는 질문에 1~2회 (39.0%)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한달에 녹색가게를 3회 이상 이용하는 사람이 60.9%로, 일주일에 한번 이상 구매하는 사람의 비율도 높았다(표 2).

또한 한달 구입 갯수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1~4점을 구입하는 응답자가 50.0%로 가장 많았고, 10~19점을 구입하는 사람도 17.3%였다(표 3).

구입하는 의복의 품목을 조사한 결과, 여성복(45.7%)을 가장 많이 구입했고, 아동복(25.6%), 남성복(19.4%), 유아복(9.3%) 순으로 나타났다(표 4).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많은 응답자들이 본인의 의복을 구입해 가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각 품목별 주요 아이템을 살펴보면 여성복은 바지(21.8%), 셔츠(18.3%), 스커트(12.9%), 재킷(12.2%), 아동복은 바지(32.6%), 재킷(18.0%), 점퍼(14.0%), 원피스(10.0%), 남성복은 바지(32.5%),

<표 2> 한달 구입 횟수

구입 횟수	빈도(명)	백분율(%)
1-2번	108	39.0
3-4번	86	31.0
5-8번	35	12.6
9번 이상	48	17.3
Total	277	100.0

<표 3> 한달 구입 갯수

구입 개수	빈도(명)	백분율(%)
1-4점	142	50.0
5-9점	46	16.2
10-19점	49	17.3
20-29점	10	3.5
30점 이상	5	1.8
무응답	32	11.3
Total	284	100.0

셔츠(29.5%), 점퍼(20.9%)였다. 모든 품목에서 바지를 구입해 가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 외에도 셔츠, 재킷, 점퍼의 비율이 높아 일상적으로 착용하는 아이템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빈도는 낮지만 유아복과 한복도 구입하고 있었다.

<표 4> 구입 품목 (복수 응답 가능)

구입품목		빈도(명)	백분율(%)	구입품목		빈도(명)	백분율(%)	
구입 품목	여성복	221	45.7	남성복	재킷	23	9.8	
	남성복	94	19.4		바지	76	32.5	
	아동복	124	25.6		점퍼	49	20.9	
	유아복	45	9.3		셔츠	69	29.5	
	Total	484	100.0		코트	4	1.7	
여성복	재킷	81	12.2		한복	1	0.4	
	스커트	86	12.9		기타	12	5.1	
	바지	145	21.8		Total	234	100.0	
	점퍼	45	6.8		아동복	재킷	63	18.0
	블라우스	60	9.0			바지	114	32.6
	셔츠	122	18.3	스커트		33	9.4	
	원피스	50	7.5	점퍼		49	14.0	
	코트	39	5.9	원피스		35	10.0	
	한복	16	2.4	코트		16	4.6	
	기타	22	3.3	한복		19	5.4	
	Total	666	100.0	기타		21	6.0	
				Total		350	100.0	

2) 의복 구입 후 만족도

녹색가게에서 의류를 구입한 후 만족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표 5>와 같이 만족 55.6%, 보통 25.0%, 매우 만족 14.4%, 불만족 0.7%로, 만족하는 경우가 70.0%로 매우 높았고, 불만족 하는 경우가 0.7%로, 녹색가게 이용자의 대부분이 만족하였다.

만족하는 이유와 불만족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다(표 6). 두 문항 모두 복수 응답이 가능하였다. 만족하는 이유는 '가격이 너무 싸다(46.7%)', '환경 문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33.9%)'의 비율이 높아, 경제적 만족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녹색가게를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쇼핑을 많이 할 수 있어서(11.0%)'의 비율도 높았다.

<표 5> 녹색가게 의복 구입 후 만족도

만족도	빈도(명)	백분율(%)
매우 불만족	0	0.0
불만족	2	0.7
보통	71	25.0
만족	158	55.6
매우 만족	41	14.4
무응답	12	4.2
Total	284	100.0

한편 녹색가게의 의류가 값이 싸고, 쉽게 다시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녹색가게는 원칙적으로 한번 산 물건에 대해서 교환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표 6> 녹색가게에서 의복 구입시 만족과 불만족 이유 (복수 응답 가능)

만족 이유	빈도(명)	백분율(%)	불만족 이유	빈도(명)	백분율(%)
가격이 너무 싸다	200	46.7	유행에 뒤떨어진다.	107	39.2
환경문제에 도움이 될 것 같다.	145	33.9	너무 낡았다.	60	22.0
쇼핑을 많이 할 수 있다.	45	11.0	세탁상태가 좋지 않다.	54	19.8
쉽게 개조할 수 있다.	18	4.2	치수가 맞지 않다.	44	16.1
낡은 느낌이 좋다.	9	2.1	소재가 좋지 않다.	6	2.2
기타	9	2.1	기타	2	0.8
Total	428	100.0	Total	273	100.0

<표 7> 인구 통계적 변인에 따른 만족도 차이

변인	의복 구입 후 만족도	t-value / F-value		
성별	여성	3.87	t-value	-0.09
	남성	3.89		
연령	20-29세	3.89	F-value	1.32
	30-39세	3.94		
	40-49세	3.78		
	50세 이상	3.95		
결혼 여부	미혼	4.00	t-value	1.05
	기혼	3.86		
자녀 수	1명	4.01	F-value	2.39
	2명	3.80		
	3명 이상	3.94		
소득	100만원 이하	3.85 A	F-value	6.76***
	100-200만원	4.07 A		
	200-400만원	3.92 A		
	400만원 이상	3.57 B		
교육	중졸 이하	4.07	F-value	0.76
	고졸	3.87		
	대졸	3.85		
	대학원졸 이상	4.00		

*** $p \leq .001$, A>B: Duncan-test, $p \leq .05$ 수준

녹색가게에서 구입한 물건을 다시 교환하여 다른 물건으로 재교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녹색가게는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운영이 이루어지고, 대부분 일정 시간만 근무하기 때문에 물건의 구매 여부를 모두 체크하기 어렵다고 한다.) 사고, 바꾸고를 반복하면서 “쇼핑 중독증”을 녹색가게에서 해결하려는 수가 적지 않아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녹색가게 운영자 측은 피력하였다.

불만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유행에 뒤떨어진다(39.2%)’, ‘너무 낡았다(22.0%)’, ‘세탁 상태가 좋지 않다(19.8%)’, ‘치수가 맞지 않다(16.1%)’로 나타났다.

인구 통계적 변인에 따라 녹색가게에서 의복을 구입한 후 만족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표 7). 성별, 연령, 결혼 여부, 자녀의 수, 교육의 변인에서는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소득 변인에서만 유의수준 0.001에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다. 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만족도가 떨어졌다.

3) 의복을 착용하는 기간

녹색가게에서 의복을 구입한 후 그 의복을 착용하

<표 8> 녹색가게에서 구입한 의복의 착용 기간

착용 기간	빈도(명)	백분율(%)
1-3개월	68	23.9
4-6개월	53	18.7
7개월-1년	65	22.9
1년-1년 6개월	3	1.1
1년 7개월-2년	27	9.5
2년 초과	14	4.9
무응답	54	19.0
Total	284	100.0
평균(표준편차)	10.4(9.2)	

는 기간에 대해 묻는 질문에 1~3개월이 23.9%로 가장 많았고, 7개월~1년(22.9%), 4~6개월(18.7%)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많았다(표 8). 총 응답자의 의복 착용 기간의 평균은 10.4개월로 나타났다. 김시월 외 4인의 연구(1998)에서는 사장의복이 되는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있고, 김병미, 이재명의 연구(1997)에서는 착용기간이 2~3년으로 조사되어, 이와 비교해 보면 녹색가게 이용자의 의복 착용 기간이 극히 짧았다. 이는 녹

색가게에서 구입한 의복이 중고의류이기 때문에 낡고, 유행에 뒤져 착용 기간이 짧고, 또한 싼 값에 구입했기 때문에 쉽게 사장 의류가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은 결과는 녹색가게에서 구입한 재활용 의류가 크게 의미있는 재활용기간을 거치지 못하고 단기간 내에 다시 사장 의류 내지는 폐기 의류가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녹색가게 의류 판매가 본래 의미있는 자원 보존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재활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따라서 앞의 불만족 요인, 즉 유행성이 뒤떨어졌거나, 지나치게 노후되었거나, 보존상태가 좋지 않은 제품을 지양하고, 교환금지를 보다 강화시키거나, 적립금을 제품 상태에 따라 절상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4) 사장 의류 처리 방법

녹색가게에서 구입한 의복을 더 이상 입지 않을 때 처리 방법에 대해 조사하였다(표 9). ‘헌옷 수거함에 넣는다’는 응답자가 44.4%로 가장 높았고, ‘녹색가게에 다시 가져 온다’는 응답자도 35.3%로 높았다. 그 외 ‘버린다(10.8%)’, ‘불쌍한 사람에게 준다(5.3%)’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사장 의류 처리 방법에 대한 김병미, 이재명(1997)의 연구결과에서는 ‘가족이나 친지에게 주었다’, ‘대부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 ‘쓰레기와 함께 버린다’, ‘고쳐서 재활용했다’, ‘헌옷 수집함에 넣었다’ 순으로 본 연구 결과와는 상반되게 나타났다. 녹색가게 이용자들은 사장 의복에 대해 적극적 의복 처리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그대로 보관한다는 비율이 적었다.

5) 의류 교환

녹색 가게에 의복의 교환이나 기증을 위해 가져 온

<표 9> 녹색가게에서 구입한 사장 의류 처리 방법 (복수 응답 가능)

사장 의류 처리 방법	빈도(명)	백분율(%)
헌옷 수거함에 넣는다.	160	44.4
녹색가게에 다시 가져온다.	127	35.3
버린다.	39	10.8
불쌍한 사람에게 준다.	19	5.3
기타	9	2.5
옷장에 둔다.	6	1.7
Total	360	100.0

<표 10> 의류 판매 여부

의류 판매	빈도(명)	백분율(%)
있다.	238	83.8
없다.	41	14.4
무응답	5	1.8
Total	284	100.0

<표 11> 녹색 가게에 의류를 가져 온 이유 (복수 응답 가능)

녹색 가게에 의류를 가져 온 이유	빈도(명)	백분율(%)
다른 사람이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197	40.8
교환을 할 수 있으므로	131	27.1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어서	106	21.9
폐기 처분할 수 있어서	23	4.8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깐	22	4.6
기타	4	0.8
Total	483	100.0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있다’는 응답자가 83.8%로 ‘없다’고 대답한 응답자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표 10). 가져 온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가 40.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교환을 할 수 있으므로(31.7%)’,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어서(21.9%)’, ‘폐기 처분을 할 수 있어서(4.8%)’ 순이었다(표 11).

6) 수선

녹색가게에서 의류를 구입한 후 수선 여부를 물었다(표 12). ‘수선 경험이 있다’가 54.2%, ‘수선 경험이 없다’가 43.0%로 수선 경험 유무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수선 품목은 여성복(65.2%)이 가장 많았고, 아동복(20.8%), 남성복(16.1%) 순으로, 구매 비율과 비슷하였다.

수선 부위는 하의 길이가 58.5%로 월등히 높았고, 그 외 하의 통(9.8%), 소매길이(9.8%), 상의 품(6.6%), 상의길이(5.5%)였다.

수선 장소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가 39.1%로 가장 높았고, 세탁소(32.1%), 전문 수선소(10.7%), 녹색가게(10.9%) 순이었다. 대부분의 녹색가게에서는 수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은평 등의 소수의 녹색가게에서는 수선센터를 운영한 적이 있었다. 녹색가게내 수선센터는 다른 곳에 비해 값이 싸고, 바로 수선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호응도가 높았으나,

〈표 12〉 녹색가게에서 의복을 구입한 후 수선에 관해 (복수 응답 가능)

수선		빈도(명)	백분율(%)	수선		빈도(명)	백분율(%)
수선 품목	여성복	105	65.2	수선 유무	있다.	154	54.2
	아동복	30	20.8		없다.	122	43.0
	남성복	26	16.1		무응답	8	2.8
	Total	161	100.0		Total	284	100.0
수선 부위	하의 길이	107	58.5	수선한 곳	본인	61	39.1
	하의 통	18	9.8		세탁소	50	32.1
	소매길이	18	9.8		전문 수선소	26	16.7
	기타	18	9.8		녹색가게	17	10.9
	상의 품	12	6.6		기타	2	1.3
	상의길이	10	5.5		Total	156	100.0
	Total	183	100.0				

〈표 13〉 중고 의류구입 여부와 교환에 관한 주위의 반응 (복수 응답 가능)

중고의류 구입을 주위에 알린 적이 있는지	빈도(명)	백분율(%)	주위의 반응	빈도(명)	백분율(%)
있다.	241	84.9	같이 와서 구입하고 싶어 한다.	172	62.8
없다.	35	12.3	반응이 없다.	52	19.0
			부러워한다.	46	16.8
무응답	8	2.8	창피해 한다.	4	1.5
Total	284	100.0	Total	274	100.0

운영상의 문제로 폐쇄되었다.

7) 중고 의류 교환에 대한 주위의 반응

녹색가게에서 의복을 구입한 경험을 주위(가족, 친구 등)에 알린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있다'가 84.9%로 월등히 높았다(표 13).

주위에 알린 적이 있다면 주위 분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인 '같이 와서 구입하고 싶어한다(62.8%)', '부러워한다(16.8%)'가 부정적인 반응인 '창피해 한다(1.5%)', '반응이 없다(19.0%)'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표 14). 많은 소비자들이 중고의류의 교환, 구매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병미, 이재명(1997)의 연구에서도 중고 의류 착용 여부에 대해서는 77.8%가 찬성을 보였다. 그러나 실제 헌 옷을 구입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62.0%로 높게 나타났고, 박화순, 서영순(1998)의 연구 결과에서도 환경의식 행동 15항목 중 중고의류 구매가 1.59(5점 만점)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의식과 실천의 차이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중고 의류 시장이 초기 단계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헌옷을 판매하는 중고 의류 상회가 거의 없으며 물물교환이

나 알뜰시장을 개최하는 경우가 적는데 기인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녹색가게와 같은 재활용 의류를 판매하는 곳에 대한 홍보가 많이 이루어진다면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도 증가할 것이다.

3. 녹색가게 이용자의 의복 태도

본 연구에서는 의류 재활용을 실천하고 있는 녹색가게 이용자의 의류 행동을 파악하기 위해서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주성분 모형을 사용하였다. 요인의 성격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varimax 회전법에 의한 직교회전방법을 사용하였다. 아이겐값의 절대치가 1이상일 때 요인수를 결정하였다. 또한 각 요인의 내적 신뢰도를 살펴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항은 삭제하였다.

결과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각 요인에 대한 신뢰도는 요인별로 각각 0.79, 0.72, 0.73, 0.69, 0.43으로 나타났고, 총 설명력은 56.84%이다. 요인 1은 유행에 관한 문항 '유행스타일을 남보다 먼저 입는다', '나는 최신 유행의 옷을 사기 위해서 많은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와 신분 상징성에 관한 문항 '가격이

비싸더라도 잘 알려진 상표의 옷을 사는 것이 좋다’, ‘유명상표라는 것이 나타날 수 있는 옷을 산다’이 함께 묶여, 유행·신분상징성 요인이라고 명명하였다. 녹색 가게 이용자들은 유행성과 신분 상징성을 동시에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고유치는 2.64, 설명력은 13.88%를 차지하고 있다. 요인 2는 정숙성 4문항이 묶여져 정숙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편안성 4문항이 묶여져 편안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4는 동조성 4문항이 묶여져 동조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5는 경제성 3문항이 묶여져 경

제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4. 의복 재사용 실태와 의복 태도와의 관계

의복 재사용 실태와 의복 태도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의류 재사용 실태 중 녹색가게에서 의복을 구입한 후 만족도, 녹색가게에서 구입한 의복의 착용 기간, 녹색가게를 비롯한 중고 의복의 한달 동안의 구입 갯수와 녹색가게 이용자의 의복 태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표 15).

<표 14> 녹색가게 이용자의 의복 태도의 요인 분석 결과

문항	요인명	유행, 신분상징성	정숙성	편안성	동조성	경제성
유행스타일을 남보다 먼저 입는다.		0.77	-0.03	-0.07	0.10	0.06
가격이 비싸더라도 잘 알려진 상표의 옷을 사는 것이 좋다.		0.76	0.07	0.01	0.23	-0.10
유명상표라는 것이 나타날 수 있는 옷을 산다.		0.75	0.05	0.04	0.28	0.08
나는 최신 유행의 옷을 사기 위해서 많은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		0.67	0.04	-0.17	0.20	-0.07
몸에 꼭 끼는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민망해진다.		0.07	0.80	0.05	0.06	0.13
노출이 심한 옷을 태연하게 입은 것은 정숙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0.01	0.79	0.15	0.08	0.07
비치는 옷은 짐작지 않다고 생각한다.		0.13	0.78	0.10	0.02	0.11
더울 때는 블라우스의 앞단추를 두개 정도 열어 가슴이 좀 보여도 괜찮다.		-0.42	0.51	0.02	0.05	-0.15
나는 내가 좋아하는 형태의 옷이라도 입어서 편안하지 않으면 안 입는다.		-0.07	0.07	0.78	0.13	0.01
옷을 살 때 신체적으로 편안한 옷을 산다.		-0.04	0.06	0.77	-0.07	0.12
나는 걸모양보다는 기온에 적합하고 쾌적한 옷을 고른다.		-0.02	0.04	0.70	-0.17	0.05
착용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옷이 좋다.		-0.07	0.20	0.64	-0.02	0.31
친구들과 비슷한 옷을 입을 때 동질감을 느낀다.		0.24	0.03	0.00	0.74	-0.05
친구들과 유사한 옷을 입어야 마음이 편하다.		0.13	0.04	-0.09	0.70	-0.17
내가 속한 집단의 옷 입은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한다.		0.12	0.17	0.10	0.70	0.19
모임에 가서 내 옷이 다른 사람들의 옷과 다르면 불안하다.		0.31	-0.03	-0.17	0.57	0.01
옷을 구입하기 전에 여러 매장을 둘러보고 가격과 품질 등을 비교한다.		0.03	0.07	0.07	0.09	0.74
옷이 값에 비해 얼마나 유용한지 고려하고 산다.		-0.19	0.11	0.14	-0.02	0.61
옷은 주로 세일 기간에 산다.		0.14	0.02	0.10	-0.09	0.61
고유치		2.64	2.25	2.24	2.12	1.55
변량기여율		13.88	11.83	11.79	11.18	8.17
누적기여율		13.88	25.71	37.49	48.67	56.84
신뢰도 계수		0.79	0.72	0.73	0.69	0.43

<표 15> 의류 재사용 실태와 의복 태도 간의 상관관계

n=284명

의류재사용실태 의복태도	유행, 신분상징성	정숙성	편안성	동조성	경제성
의복 구입 후 만족도	-0.14*	-0.10	0.05	0.04	-0.07
녹색가게에서 구입한 의복착용기간	-0.19**	0.10	0.13	-0.02	0.02
한달 구입 갯수	0.00	0.10	0.07	-0.06	-0.04

*p<.05, **p<.01

녹색가게에서 의복을 구입한 후 만족도와 유행·신분 상징성, 녹색가게에서 구입한 의복의 착용 기간과 유행·신분 상징성만이 유의적인 의미가 있었고, 두 항목 모두 음의 상관이다. 유행·신분 상징성이 높은 사람은 녹색가게 의복을 구입한 후 만족도가 낮고, 녹색가게에서 구입한 의복의 착용 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고의복 구입에 대해 만족도가 높고, 의류 재사용 실태 중 의복 착용 기간이 긴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유행, 신분 상징성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노정구(1995)의 연구 결과 녹색소비자는 패션의식이 낮고, 박성연의 연구(1998)에서도 환경친화성 집단은 환경무관심 집단에 비해 의복의 패션지향성이 낮고, 패션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중고 의복 구입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의복을 착용하는 기간이 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환경친화성이 높은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들은 패션에 대한 관심이 적어, 유행, 신분 상징성이 낮게 나온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앞으로 사장 의복의 처리 방법으로 큰 역할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고의류판매점에서 실제로 의류 교환을 통해 의복을 적극적으로 재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행동과 의복 태도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녹색가게의 주요 이용자는 30, 40대의 자녀를 두 명 둔 기혼 여성으로 수입은 200~400만원 정도이고,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2. 녹색가게의 이용 실태를 살펴보면 한달에 녹색가게 이용 횟수는 1~2회가 가장 많았으나, 일주일에 한번 이상 구매하는 사람의 비율도 높았다. 가장 많이 구입하는 의복의 품목은 여성복, 아이템별로는 모든 품목에서 바지를 구입해 가는 비율이 가장 높아, 일상적으로 착용하는 아이템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녹색가게에서 의류를 구입한 후 만족도에 대해서는 70%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만족하는 이유는 '가격이 너무 싸다', '환경 문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의 비율이 높았다. 녹색가게에서 의복을 구입한 후 그 의복을 착용하는 기간은 1~3개월이 가장 많았고, 총 응답자의 의복 착용 기간은 10.4개월로 나타

났다. 또한 녹색가게에서 의복을 구입한 경험을 주위(가족, 친구 등)에 알린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있다'가 월등히 많았다. 주위에 알린 적이 있다면 주위 분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인 '같이 와서 구입하고 싶어하거나', '부러워하는 경우'가 부정적인 반응보다 많았다.

3. 의류 재활용을 실천하고 있는 녹색가게 이용자의 의류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행·신분상징성(요인 1), 정숙성(요인 2), 편안성(요인 3), 동조성(요인 4), 경제성(요인 5)으로 나타났다.

4. 의복 재사용 실태와 의복 태도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행·신분상징성이 높은 사람은 녹색가게 의복을 구입한 후 만족도가 낮고, 녹색가게에서 구입한 의복의 착용 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사장의류 처리 방법으로 의류 재사용을 실천하고 있는 소비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의류 재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소비자는 의복 재활용에 관심이 있으며 이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의류 재사용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것은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불품교환시장이나 중고 의류 판매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불품교환시장이나 중고 의류 판매소의 수를 늘리고, TV나 신문 등 주부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 매체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소비자를 끌어 들이기 위해서는 이용 시간의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녹색가게는 오전과 낮시간에만 영업을 하고 있어 대부분의 고객이 전업주부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요일에 따라 저녁 시간까지 영업시간이 확대된다면 직업을 가진 주부 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큰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연구 결과 의류 재사용이 경제적인 이유 뿐만 아니라 환경적 이유를 가지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많았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이용자들도 많았던 점을 감안할 때 매장의 분위기를 좀더 고급화시키고, 디스플레이 등에 신경을 써 좀더 자연스럽게 교환할 수 여건과 분위기를 창출시킨다면 더욱 많은 이용자들의 수를 늘릴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서울 및 서울 근교 신도시의

녹색가게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연구되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확대 해석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의복 재사용 방안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후속 연구가 뒤따라야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병미, 이재명. (1997). 착용하지 않는 의복의 처리 실태에 관한 조사 -환경 보전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5(2), 21-32.
- 김시월, 이영숙, 이해임, 권오정, 이진영. (1998). 소비생활과 재활용(1)-의생활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9), 107-125.
- 김용숙, 신상옥. (1998). 주부들의 환경 보전을 위한 의생활 행동. *복식*, 39, 271-281.
- 노영래, 김시월. (2002). 소비자의 환경의식, 재활용의식과 재활용행동에 관한 연구 -미혼취업여성의 사장의복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0(1), 165-178.
- 박광희. (1998). 의복 처분 행동에 관한 연구 -환경보존적 태도, 행동, 정보 접촉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5), 47-58.
- 박성연. (1998). 체계적 분석의 틀을 이용한 한국 녹색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 특성에 관한 연구. *생산성논집*, 12(3), 281-301.
- 박운아, 이기춘. (1997). 소비자의 환경친화적 행동과 관련 요인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5(5), 221-238.
- 박정혜, 이선재. (2002). 추구 의복 이미지와 의복 태도에 따른 색조 화장품 선호도 연구. *복식*, 52(7), 87-102.
- 박화순, 서영숙. (1998). 소비자의 환경의식과 의생활 행동과의 관련성. *대한가정학회지*, 36(10), 79-88.
- 박혜선, 김화순. (1998). 의복 태도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 의류학회지*, 22(2), 279-289.
- 서은연, 유태순. (1999). 환경보호 관심도가 환경보호적 의복 구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3(8), 1182-1193.
- 유명의, 안혜자. (2001). 의복재활용 행동에 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4(1), 107-125.
- 장경혜. (1996). *사회책임적 의류 처분행동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장경혜, 박재옥. (1997). 사회책임적 의류 소비 태도가 의류 처분 행동에 미치는 영향(1). *한국의류학회지*, 21(4), 795-805.
- 최나영, 김문숙. (2000). 그린 패션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와 행위적 특성 분석. *복식*, 50(1), 145-159.
- 재활용 용어 사전*. (2003). 자료검색일 2003. 5. 27, 자료 출처 <http://www.mc.go.kr>
- 도시 근로자 연평균 소득. (2003). *통계청*. 자료검색일 2003. 7. 27, 자료출처 <http://www.nso.go.kr>